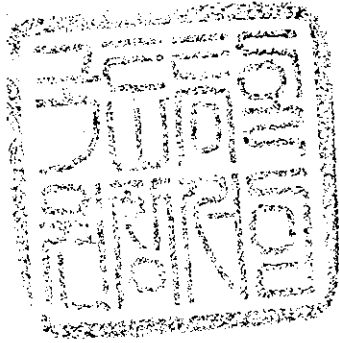


중공의 대동남아 경제원조와 그 전망



1970. 1

국 토 통 일 원

차 례

가. 비공산국가에 대한 경제원조	4
나. 동남아 각국간의 관계와 최근 동향	10
(1) 버마	10
(2) 인도네시아	11
(3) 캄보디아	11
(4) 파키스탄	13
(5) 네팔	14
(6) 세이론	15
다. 공산국가에 대한 경제원조	15
라. 중공과 소련의 대비공산국가에 대한 경제원조의 비교, --	19
(1) 원조액	19
(2) 원조 조건	20

서 론

중공의 대외원조는 한국동란의 발발로 인한 한국전 참가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중공은 소련의 군사적인 원조와 경제원조를 받아 자기 자신의 전쟁력을 충실히 하는 한편 한국전쟁에 필요에 따라 북괴에 대한 군사원조와 상당금액의 경제원조를 하였던 것이다. 중공이 대외 경제원조를 시작하기 시작하던 초기에 있어서의 대상국이나 금액은 극히 제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1956년부터는 공산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는 적극 강화되었고 비공산국가에 대한 경제원조의 공세도 펴기 시작하여 이를 이용한 침투 또는 전복활동 등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1956년에서 1959년 사이의 중공의 대외경제원조는 매년 평균 3천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60년부터는 점차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대상국가도 아주를 비롯하여 중남미와 구주제국등 21개 국가로 확대 되었다. 1960년에서 1965년까지의 5년간의 원조목표액은 8억 4천 5백만불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원조는 25%에 불과한 2억 1천 1백여만불만을 지출하였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공의 이웃나라에 대한 경제원조의 능력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2억 1천 1백여달러의 경제원조의 대상은 거의 반수가 아주국가에 해당되었고 비아주가 30% 그 나머지는 중동국가가 해당되었다.

중공의 비공 저개발국가

대 상	년분 (年分)	1956	1957	1958	1959
아 주 (亞 洲)		51.7	18.8	21.7	
아 프 가 니 스 탄					
버 마					
캄 보 디 아		22.9			
세 이 룬			15.8	10.5	
인 도 네 시 아		16.2		11.2	
라 오 스					
네팔		12.6			
파 키 스 탄					
중 동 (中 東)		4.7		12.7	0.7
시 리 아					
아 랍 공 화 국		4.7			
근 동 (近 東)				12.7	0.7
아 프 리 카					0.5
알 지 리 아					
<i>Central African Republic,</i>					
콩 고					
<i>Ghana</i>					
<i>Guinea</i>					0.5
<i>Kenya</i>					
<i>Mali</i>					
<i>Somalia</i>					
<i>Tanzania</i>					
우 간 다					
합 계		56.4	15.8	34.4	1.2

에 대한 경제원조

(단위 : 백만불)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합 계
47.5	123.8	14.5		114.2	44.0	433.2
					28.0	28.0
	84.0					84.0
26.5						49.4
		10.5		4.2		41.0
	30.0			50.0	16.0	123.4
		4.0				4.0
21.0	9.8					43.4
				60.0		60.0
			16.5	108.5		143.1
			16.3			16.3
				80.0		84.7
			0.2	28.5		42.1
26.0	39.2	1.8	71.6	115.1	15.0	269.2
		1.8	50.0			51.8
				4.0		4.0
				25.2		25.2
	19.6			22.4		42.0
26.0						26.5
				18.0		18.0
	19.6					19.6
			21.6			21.6
				45.5		45.5
					15.0	15.0
73.5	163.0	16.3	88.1	337.8	59.0	845.5

중공의 경제원조는 전쟁, 침투공작, 전복활동에 사용되었다. 상기 표를 보면 중공의 대외활동의 중심소재를 알 수 있다. 즉 아주를 수위로 그 다음이 아프리카 그리고 나머지는 중동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아주에는 특히 3개국 즉 외몽고, 북한, 월맹이 주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공의 경제원조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주의 비중은 더욱 높은 것이다. 현재 아주는 세계정세의 중요한 지역으로 되고 있다. 소련의 「아주안 전체제」의 구성계획은 대중공 투쟁을 더욱 격렬하게 하였고 중공의 대아주 경제원조의 상황을 연구할 필요성을 가져다 주었다.

가. 중공의 대동남아 비공산국가에 대한 원조

중공의 「분화혁명」기간중 그들의 대동남아 각국에 대한 원조는 아래 도표와 같다. 그러나 내용이 애매하고 불명한 점이 많다. 특히 군사원조에 대한 내용이 확실치 않다. 단지 선전의 성격이 대부분이 내포되고 있다.

중공의 베트남아 각국에 대한 원조 일람표

(단위: 백만불)

구명	협정방식과 날짜	금액		조 건	원조내용 및 진행사항
		차	액 증·여		
아 프 카 니 스 탄	경제기술협정 (65.3.24)	28.0		25년 상환	
	경원협정 (67.1.17)				양곡간 사육장 건설회의 개최
	경원협정 (67.12.6)				중국차(茶) 종식(種植) 협조
	경원협정 (69.3.8)			년리 2%, 10년 상환 (상품, 또는 제 3국 화폐 상환)	농업수리협의, 양어양육시험기 술회의에서 양어양육번식에 관한 기술 협조
버 마	경원협정 (58.1)	4.2		년리 2%, 10년 상환 (상품 또는 제 3국 화폐 상환)	2개의 방직공장 건설 (63년 완료)
	경제기술협정 (61.1.9)	84.0		1961~1967년 무이자 1971~1980 10년 기간 상품 또는 제 3국 화 폐 상환	방직공장(1) 제탕공장(1) 제철공장(1) 합판공장(1) 발전소등 건설 이 협정은 1966년 50% 완성, 기계부분은 30% 완성

구명	협정방식과 날자	금액		조 건	원조내용 및 진행 사항
		차	증여		
캄 보 디 아	경원협정 (56.6.21)		22.4	1956~1956년 2년간 에 원조액 지불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제지공 장, 합판공장, 국영방송국 등 건설 1961년 국영방송국, 합판, 제지공장은 완성
	경원공동성명 (58.8.24)		5.6		소형철강공장 건설
	경원협정 보증 의정서 (60.12.19)		11.2		방직, 제지, 합판 공장 건설액 추가 투자
	경원기술의정서 (60.12.9)		14.0		세멘트공장건설추가투자, 유리 공장, 제2방직공장등 추가건 설
	경원협 의 (57.9.19)		15.75	1958~1967년 10년간 원조액 지불	
세계	차관제공교환서 (58.9.17)	10.5		1958~1965년 무이자. 1961년부터 상품 또는 제3국통화로 이를 상환	

론	경원 기술협정 (62.10.3)	10.5	1958~1967년 10년간 원조액지불	공장설비, 농업기계, 기타 종기계 구매
	차관제 공협의 (64.10.25) (65.3.15) (65.7.13)	4.2	1965~1967년 3년간 원조액지불	국제회장 및 기타건 축물건설, 철도화물차 162대 제공
인	미(米)·면화 원조협의	11.17	년리 2.5%, 분 10년 상품 또는 본국통화로 상환	
	차관협정 (59.4)	30.0	년리 2.5%, 분 15년 상환	철공장, 목재공장설치 1,800만불 방직공장 1,200만불
도	경제지원협의 (61.10.11)	30.0	년리 2% 분 12년간 상환	
	차관협정 (64.)	3.9	년리 2%	
베	차관제 공협의 (65.1.28)	50.0		건축자료
	경제기술합의서 (65.3.30)			

구명	협정방식과날자	금액		조	진	원조내용 및 진행사항
		차관	증여			
인 도 시 베아	경제원조의정서 (65.4.6)					일본산 40톤급의 제기공장건 설에 원조제공. 의정서 및 비망록서명
	공로건설협정 (62.1.13)					63년 완공
	차관공동성명 (62.12.4)	4.0				
라 오 스	경제원조협의 (56.10.7)		12.6	1956~1958 기간중 3 현금; 2/3는 물자		1957년 2월부터 이미 131 만 6천만불 원조
	경제원조협의 (60.3.21)		21.0	1960~1962년간 실행		기계설비 및 기술원조
	기차도건설협 (61.10.15)		9.8	1962~1966년간 실행		1964년 12월 완공
베	경제원조협 (65.8.29)					200 km 기차철로건설협 의서 북경에서
	경제원조협 (67.5.25)					수력발전소 및 부속설비원조 협의서 서명

경제원조협정 (67.12.16)				공로건설협회사명
경제원조협정 (68.9.27)				철도건설수리협조협회
차관협정 (65.2.18)	60.0		무이자, 10년 이후 20년 간 나누어 상환	
의연원조 (65.9.20)				
차관제공협정 (67.1.17)				쌀 5만톤, 소맥 10만톤제공
경제기술협조 및 차관협정 (68.12.24)	100.0		무이자, 기타조건 없음	공장건설, 설비기계 제공 및 기술원조
파 키 스 탄				

나. 중공의 동남아 각국간의 관계 및 최근동향

근래 중공의 내부는 물론 동남아 각국내에는 허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문화혁명」이라 경제문제로 그 동향은 주의할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1) 중공과 버마간의 관계

버마에는 「중국인 모두가 한번 침을 뱉으면 버마인 모두가 수용할 수 있다」는 유행어가 있다. 이것은 버마인이 중공을 두려워 하는 심리를 설명하는 말이다. 그뿐 아니라 중공대륙이 매년 2.5%의 인구 증가를 보인다면 1년반만에 버마의 2천 5백만 상상의 인구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버마에는 30만의 화교가 살고 있으며 국경을 보드라도 2천km로서 중공의 영토확장의 야심과 침투활동은 버마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중공은 버마에 대하여 양면정책을 쓰고 있다. 즉 경제를 미끼로 정권을 쟁취하려는 것과 친중공파의 부식으로 연합정부의 수립을 위한 위협인 것이다. 이 때문에 버마정부와 재야인사들은 중공의 원조는 한 시험폭탄과도 같은 것으로 경제를 게을리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7년 6월 29일 2백여명의 시민이 중공대사관을 습격한적이 있고 중공에서 파견된 원조전문가 유일(劉逸)을 타살한적도 있다. 당시 버마정부는 비록 제엄을 선포하였으나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당시 중공에 고용되어 일하는 상인과 교사 학생중 남자 9인 여자 18명이 피살되었다. 당시 중공도 50만 군중을 동원

하여 주중공 버마대사관을 포위하고 위협·항의하였다. 그러나 결국 중공기술자 412명이 강제로 철주 당하였고 중공주재 버마대사도 소환되었다. 중공은 후에 버마정부는 반공이라고 지적·항의하였고,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갔다. 그러나 1969년초 중공이 먼저 외교 정상화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우호관계 회복의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

(2) 중공과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1965년 9월 30일의 정변이후 중공은 즉시 기술자를 철수시키는 한편 방직공장 건설원조를 중지하였다. 1966년 8월 당시 그 공장 건설원조는 이미 $\frac{75}{100}$ 가 완성 되었다고 한다.

9월 30일 사건이후 인도네시아는 중공에 대한 배척운동을 일으켜 단교를 단행했었으나 1969년에 와서 중공의 고립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완화정책을 썼다. 그러나 중공은 도리혀 반응이 없었다.

이러한 경제하에 중공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는 정치적으로 중지할 수 없었고 지금에 이르기 까지도 경제원조가 유지되어 있는 하나 그 내용과 성과는 추측에 그칠 뿐이다.

(3) 중공과 캄보디아의 관계

중공은 「문화혁명」과정중 한때 캄보디아와 외교관계가 원만치 못했으나 중공의 경제원조 공세로 그 국세(局勢)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전과 같은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지속치는 못하였다. 현재 중공은 대외활동 적극화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 데 캄보디아 적극외교는 당연지사이다.

1968년 1월 4일 중공은 다음과 같은 군사물자를 공급하였다.

(가) 전투기 3대

(나) 훈련기 4대

(다) 76 미리 대포 20문

(라) 운수기계 4대

(마) 유탄포 20문

(바) 해양 순양함 1척

(사) 기타 의약기구

1968년 3월 30일 중공은 방직공장을 설치하여 주면서 이의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1968년 5월 28일 캄보디아 수상은 중공의 원조에 대하여 후환을 예방키 위하여 진문을 보낸 바 있다.

1968년 6월 11일에는 친히 「중국인민우의공창(中國人民友誼工廠)의 유리공장 낙성식을 주지하였다.

동년 6월 22일에는 중공이 원조한 대형 비행기를 타고 식전에 참가했고 24일에는 중공의 원조로 완성된 의학원 및 부속병원의 준공식에 참석하여 중공의 기술원조를 극찬한 바도 있다.

1968년 7월 18일에는 중공 기술자에 의해 대학 시험실 및 부속공장의 준공을 보았다.

1968년 10월 5일, 1969년 1월 10일, 1969년 1월 22일에는 비행장, 병원, 유리공장의 양도식을 거행한 바 있다.

캄보디아가 중공원조를 받는 것은 빈곤과 화교상인의 팽창억제, 및 공포감의 3종 요소가 혼합된 것이다. 캄보디아당국의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왕족불교사회주의이며 대외적으로는 방공이다. 캄보디아는 중공의 팽창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침투를 조심스럽게 보면서 귀찮게 여기고 있다. 고로 월남·태국의 반공태도와는 달리 비록 심리적으로는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밖으로는 이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중공과 파키스탄간의 관계

중공은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분규를 이용하여 파키스탄에 적극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중공과 인도의 국경 충돌로 중공의 대 파키스탄 원조는 더욱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공의 문화혁명기간중에도 파키스탄의 차관은 여전히 계속되었었다.

파키스탄을 중공의 원조를 받으면서 소련의 원조도 받고 있다. 파키스탄은 쌍방의 원조를 이용하여 중공으로 하여금 소련에 대항하는 의식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다. 즉 중공과 소련은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이용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다.

1965년 파키스탄은 중공과 경제기술원조협정을 맺었고 이 협정에 의하여 중공 기술자의 협조하에 중형기계공장을 건설하였다. 이 공장의 규모는 대단히 커서 기술공과학교까지도 부설되어 있다.

1968년 6월 28일 파키스탄 외상이 국회에서 연설하는중 중공은 파키스탄이 여하한 침략을 받더라도 이에 원조할 것을 보증하였다고 피력하였다.

또 1968년 7월 19일 주파키스탄 중공 대변인은 5만 2천원(중공화폐)을 수재난민 구제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과 소련의 대파키스탄 경제원조는 정치전으로까지 확

대되어 많은 알력을 낳고 있다. 그 한 예를 들면 소련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Tashkent* 선언(1966년 6월 1일)은 동남아 정세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피력하는가 하면 중공은 미제국주의와 소련수정주의가 파키스탄의 독립과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5) 중공과 네팔과의 관계

중공의 대네팔원조는 공노건설이 주가 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서장지방의 67km의 산을 뚫어 중요한 군사도로로 만든 것이다. 이 공로에 대한 중공과 네팔 양국간의 협정시에는 폭 4.5m~6.5m로 규정하였었으나 시공할 때는 7.5m로 넓혀 중공의 탱크등 큰 장비가 지날 수 있게끔 하는 한편 중공도 이 도로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 교량도 원래는 8톤으로 설계했었으나 중공은 암중에 13톤으로 변경하여 교량의 하중을 8천이내를 감당케 준공시켰다.

중공의 이와 같은 원조는 군사상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1968년 4월 19일 주네팔 중공대리대사는 '제화(製靴)' 등 각종 군용기구를 기증하였다. 그러나 문화혁명이 한참 고조되고 즉 1967년 7월 1일 국제전시회가 거행하는 동안 모택동의 반대선전을 대대적으로 감행하면서 모택동의 타도를 웨치는 한편 시가행진을 했으나 중공은 내정을 간섭하지 않았고(주5) 이 사건은 미국과 인도내의 반동파가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 추궁하였다. 이 사건을 네팔정부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주6)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중공은 대내팔 경제원조의 기도는 실패이며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중공과 세이론의 관계

중공의 대세이론 원조는 계속되고 있다. 55개의 방직공장을 비롯하여 매 공장마다 48대의 방직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1968년 4월까지 이미 25개가 완성되어 시동되고 있다. 「人民日報」에 의하면 작년 8월과 12월에도 확실한 수자는 알 수 없으나 몇개가 완성 가동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중공의 대세이론 원조는 방적이 그 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혁명」기간중에도 이 원조는 계속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은 순탄만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67년 8월 19일 주중공 세이론대사관에 홍위병이 난입하여 투석전을 벌렸다. 외교전문가들은 중공이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구실을 찾아 쌀 교환협정을 취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중공은 Colombo 항구에 있는 중국선박의 물자와 중공 대사관의 용품을 약탈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오래지 않아 평정되었다. 일본도 5백만불을 차관하여 10년내 청산토록 하였고 이자는 5.25%였다. 주요물자는 비료, 자동차, 부속품 기중기 등이었으며 그 원조조건은 비교적 중공보다 높았다.(주7)

다. 중공의 월맹원조

중공의 대공산권 국가에 대한 원조중 북월과 북피에 대한 원조는 제일 많은 총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원조가 무상

인지 유상인지는 알수 없으며 그 내용 역시 알길이 없다.

중공이 원조하는 국가(공산권내)는 6개국인데 그중 3개국은 아주의 외몽고, 북월, 북한이고 다른 3개국은 중남미의 큐바와 구주의 알바니아와 헝가리이다. 원조액이 제일 많은 나라는 북월이고 그 다음에 북괴이다. 중공이 한국동란에 참가하였을 당시 1953년도의 원조액은 2천만달러였고 총 3천3백만달러를 원조했다. 한편 북월에 대하여서는 1961년까지 4천5백70만불을 원조했다. 중공의 공산국가에 대한 원조액은 정확치 않으나 다음 표가 참고가 될 것으로 안다.

중공의 대공산국가에 대한 원조액 일람표

(단위 : 100 만불)

년 도	총금액	알바니아	큐 바	항 가 리	북 한	북 월	외 동
1953	20,000				20,000		
1955	20,400	400				20,000	
1956	4,950	200		750			4,000
1957	5,400	400		5,000			
1958	5,500	500			2,500		2,500
1959	11,900	1,900				10,000	
1960	22,000	500	6,000		10,500		5,000
1961	28,200	12,500				15,700	
1963	4,000		4,000				
총 액	122,350	16,400	10,000	5,750	33,000	45,700	11,500

중공의 월맹에 대한 경제원조

(단위 : 100 만불)

협의 형식 및 서명 날짜	금 액		조 건	내 용
	차 관	총 여		
공동서명 (1955. 7. 7)		32.52		철도보수, 방직, 의료기 계등을 비롯하여 기업 복구 및 증설
경제기술원조협정 (1959. 2. 18)	121.95		년리 1%, 1967 년부터 10년 간 물자로상 환	철강공장등 49개기업 건설, 기술자파견 및 실습생 양성
부상경제원조문서 교환 (1959. 2. 18)		40.65		
차관, 공장건설 협정 (1961. 1. 31)	157.47		1961~1967년 간 실행	야금, 전력, 철도, 경공 업등 28개기업단위 건설
경제기술원조협정 (1965. 7. 13)			무상원조	국방 및 경제방면의 장비
" (1966. 8. 29)			"	
" (1967. 8. 5)			"	
" (1968.)			"	
" (1969.)			"	

라. 중공과 소련의 대외공산국가에 대한 원조의 비교

(1) 원조·차관액 비교

1961년에서 1965년사이의 금액

표

(단위: 백만불)

년 도	소 련	중 공
1961	547	163
1962	53	16
1963	236	88
1964	998	338
1965	653	59
계	2,487	664

상기표에서 원조에 대한 경쟁의 비중을 알수 있다. 예를 들면 1961년 중공의 대외원조와 차관액은 소련의 4분의 1에 불과했으나 1964년에 와서는 3분의 1로 증가되었다. 중공의 경제능력은 소련을 따르지 못하나 힘의 증가와 상방 대립의 반응은 민감하다.

1956년에서 1965년간의 10년동안 중공과 소련의 대외원조 총액은 소련이 50억불, 중공이 이의 4분의 1로서 소련과 비교가 되지 못하고 있다. 동기간중 원조에 대한 현금지출 누계는 중공도 소련을 열심히 따르고 있기는 하나 소련이 지출한 50억불중 10분의 1에 불과하였다.

지금까지 중공이 취하여 온 대외원조는 체면유지에 불과했고 소련과의 경쟁에서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원조조건 비교

원조조건으로 말할것 같으면 하기 양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련이 제공한 차관은 대다수의 이율이 2.5% 12년분할 상환으로 되었고 중공은 대다수가 무이자로서 십년경과 후 십년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농구각국의 이율 3~4%에 비교하여 대단히 낮을뿐 아니라 상환기한도 길다. 중공의 차관조건은 비교적 우세한 점이 많다. 중공의 소위 적극공세를 취하는 것은 소련과의 경쟁이외에 정치영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중공의 경제원조의 목적은 이웃국가의 환심을 사는데 있다. 증여부분의 통계들 보더라도 중공은 대외원조액의 20%를 차지하고 소련은 겨우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공의 이러한 증여 방식은 장기적으로 계속되기는 힘들 것이며 차츰 차관형식으로 바뀔 것이다.

-
- 주 1 ; 1969. 7. 30. 「朝日新聞」
 - 주 2 ; 1967. 7. 29. 「모스크바 방송」
 - 주 3 ; 1967. 7. 22. 「朝日新聞」
 - 주 4 ; 1967. 7. 6. 「모스크바 방송」
 - 주 5 ; 1967. 7. 3. 「 " " 」
 - 주 6 ; 1967. 7. 21. 중공 「新華社」
 - 주 7 ; 1967. 9. 20. 「朝日新聞」